



현대차 신형 투싼 전면 티저 이미지.

5년만에 혁신적 진화 개방감·독창성 ‘방점’

현대차, 4세대 투싼 이미지 공개

전방, 실내 탁 트인 개방감 구현
전후면 히든램프로 강렬한 인상
운전석엔 개방형 클러스터 탑재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출시되는 신형 모델의 디자인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과거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2004년 첫 출시 후 전 세계 누적 약 700만대 이상 판매된 준중형 SUV 신형 투싼은 완전변경(풀체인지)을 통해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적용해 강렬한 인상을 주는 역동적인 외장 디자인을 완성했다. 또 혁신적으로 개선된 전방 개방감과 미래지향적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실내 디자인을 갖췄다.

전면부는 빛의 변화에 따라 입체적으로 반짝이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을 적용했고 시동을 켜면 주간주행등으로 점등되는 ‘파라메트릭 주얼 히든 램프’를 탑재해 강렬한 인상을 준다. 측면부는 길어진 전장과 축간거리, 짧은 오버행으로 정지한 상태에서도 앞으로 달려나가는 듯한 역동적인 비율을 보여준다.

후면부는 후미등을 감싸고 있는 검정 테두리 위에 ‘파라메트릭 히든 램프’를 적용해 후미등 점등시 삼각형 형

상이 모습을 드러내는 ‘히든 라이팅’ 기법으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선보인다.

실내는 개방형 클러스터와 대시보드 아래에 위치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탁 트인 전방 개방감을 구현했다.

운전석에는 클러스터 하우징(계기판을 둘러싼 테두리)이 없는 개방형 클러스터가 탑재됐다. 센터페시아 양 옆에서 시작해 대시보드를 거쳐 후석 도어트림까지 이어지는 은빛 장식은 공간이 확장하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현대차의 신형 투싼은 오는 15일 공식 출시된다.

얇고 정교한 주간주행등(DRL)은 하이테크하고 세련된 인상을 더한다. 힘 있고 진취적인 모습을 표현한 스킵드 플레이트(차체 하부 보호판)는 앞 범퍼와 조화롭게 연결돼 더 뉴 코나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현대차는 투싼에 이어 올해 연말 출시를 앞둔 G70 부분변경모델은 4개의 램프로 구성된 쿼드 헤드램프와 방패 모양 대형 크레스트 그릴 등이 새롭게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요소인 지메트릭스를 라디에이터 그릴뿐 아니라 헤드와 리어 램프, 전용 휠, 내장 등 곳곳에 적용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담아낼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넥슨, ‘바람의나라: 연’ 유저 친화 개선

밸런스개선 업데이트 패치노트 공개

넥슨은 3일 모바일게임 개발사 슈퍼켓과 공동개발한 신작 모바일 MMORPG ‘바람의나라: 연’에 밸런스개선 업데이트 패치노트를 공개했다.

4일 진행되는 업데이트 내용을 담은 이번 패치노트에는 ‘무장도·전투력’ 수치 조정과 ‘파천장비 조각’의 획득처 변경과 ‘파천장비(증강)’ 제작확률 상향, 승급 아이템(패) 획득, 승급 기술 관련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무장도와 전투력이 실제 성능에 기반한 현실적인 수치로 조정된다. 또 승급에 필요한 아이템(패)을 주는 보스 몬스터의 등장 채널을 늘리고, 재 등장 시간을 단축한다. ‘미확인 패’를 획득하면 일정 시간 해당 아이템을 다시 획득할 수 없는 페널티 시간도 단축한다.

승급 기술 습득에 필요한 레벨을



135로 하향하고, 승급 기술 제작에 필요한 재료 없이 금전과 도안만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산적굴’의 ‘파천장비(증강)’의 제작 확률을 70%로 상향하고, 제작에 필요한 ‘파천장비 조각’을 ‘산적굴’ 1층 몬스터 전체에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구명곡의 수호자 레이드 장비 세트’ 추가와 레이드 보상 개선, ‘죽은 자들의 마을’ 관련 일일 임무를 추가하고, 플레이에 불만을 미치는 버그를 수정한다. ‘자동전투’ 시 캐릭터의 AI와 ‘그룹 따라가기’ 효율 또한 개선된다.

/김나인 기자 silkn@

“집콕족 땡큐”... 종합가구社 실적 함박웃음

한샘·현대리바트·까사미아 등
주택시장 침체 불구 실적 ‘경풍’
홈코노미·인테리어 소비 주효
온라인 공략 강화, 하반기 ‘청신호’

종합가구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상반기 실적이 크게 오르는 등 순항하며 올해 장사에 ‘파란불’이 켜졌다.

가구업계에선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구 교체, 인테리어 등에 신경쓰는 수요가 크게 늘고, 이것이 실제 관련 회사들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개별 회사들마다 온라인 시장 공략, 오프라인 매장 확대, 제품 라인업 추가, 급성장하는 인테리어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추가 성장을 도모한 효과도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방산업인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산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침대부터 책상, 옷장, 인테리어, 소품 등을 다루는 종합가구회사들에겐 다행히 ‘먼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관련회사들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116억원의 매출(연결기준)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의 8534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39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영업이익 270억원을 크게 앞섰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4분기만 놓



고 봐도 5172억원의 매출과 23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은 25.9%, 영업이익은 무려 173.5% 늘어난 수치다.

한샘 관계자는 “분기 매출이 20% 이상 성장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4년 6개월만의 일”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구를 포함한 전체 시장의 침체를 우려했지만 집과 관련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홈코노미’ 소비의 폭발적 증가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등이 늘어나며 상반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계열인현대리바트도 올해 상반기 매출이 722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매출 6134억원보다 1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상반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158억원에서 올해는 249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만 봐도 현대리바트는 매출 3529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8%, 67.6% 각각 증가했다.

리바트 키친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개인(B2C) 분야의 리빙사업 성장,

빌트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대기업(B2B) 부문 물량 확대 등이 실적에 긍정적 요인을 미쳤다.

신세계 계열인 까사미아도 올해 상반기에만 72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7.9% 성장했다.

지난해 118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까사미아는 올해 1600억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종합가구사들이 하반기는 어떨까.

한샘은 상반기의 여세를 몰아 하반기에도 리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패키지과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공략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올해 초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시장 매출 10조’ 달성을 위해 리하우스, 온라인, 키친바흐, 인테리어, 특관을 중심으로 사업분부를 꾸리고 홈인테리어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엔택트(비대면) 소비 확산과 홈코노미 성장에 따른 집꾸미기 열풍 등으로 온라인 공략은 대세다.

까사미아는 지난 7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전문몰 ‘군닷컴’을 새로 열었다. 군닷컴은 1개월 만에 회원수가 9만6000명을 넘어서는 등 안착했다. 또 온라인 전용 브랜드 ‘어니언’을 새로 론칭하기도 했다. 까사미아는 올해 말까지 군닷컴에 총 300여개 브랜드를 입점한다는 목표다.

/김승호 기자 bada@

위니아딤채, 당 50% 줄여주는 압력밥솥

‘딤채국 당질저감 50 레트로’ 출시

당질저감 밥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위니아딤채는 3일 ‘딤채국 당질저감 50 레트로(사진)’ IH압력밥솥 6인용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딤채국 당질저감 50레트로’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세계최초 IH압력 당질저감 밥솥 ‘딤채국 당질저감 30’에 이은 2020년형 모델이다.

위니아딤채는 ‘딤채국 당질저감 50 레트로’ IH압력밥솥을 한국식품과학 연구원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일반밥솥으로 지은 밥(백미 기준)보다 46%, 쌀의 품종(발벼)에 따라서는 최대 51% 당질(탄수화물) 성분을 낮춰준다고 성

능을 인증 받았다.

냉동 보관에 최적화된 냉동 당질저감밥 알고리즘도 신규 적용됐다. 저당 냉동밥 메뉴로 취사하면 냉동 보관한 뒤 밥을 해동해도 갖 지은 밥맛에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해준다.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18종의 건강요리 메뉴와 84가지 레시피도 추가했다. 식품 자체의 수분으로 조리하는 저수분점 기능은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의 영양소손실을 최소화하고 타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고기, 야채를 이용한 저당, 저유, 저염 조리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저칼로리 대표 식품인 곤약밥 메뉴도 추가했다. 소화기관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을 자극해 변비나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곤약을 활용한 다양한 곤약밥 조리도 가능하다.

‘딤채국 당질저감 50 레트로’ IH 압력밥솥은 당질저감 트레이를 100%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고 핸들과 패키지를 손쉽게 분리할 수 있어 제품 세척이 용이하다.

/김재용 기자 juk@

운전면허증 카톡에 ‘썩’... 연내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획득

카카오톡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톡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내에 운

전면허증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해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위·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카카오가 보유한 보안 기술이 적용된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프라인 신분 확인과 운전면허 자격 증명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전자서명을 위

한 인증서를 생성한 뒤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으로 신분 정보와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카카오뱅크의 신분확인 기술을 이용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운전면허증 정보를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해 카카오톡에 등록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된다. 발급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용할 때도 전자서명을 통해 동일한 여부를 확인한다.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 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